

## 홍 시

원목사무장 이형란  
남원의료원

올해는 유난히 빨강계 익은 감이 집집마다 풍성하게 달려 있는 것 같다. 가을이 배부른 계절이라고 하지만 늦가을을 더 풍요롭게 장식하는 것은 마른가지에 빨강계 매달린 감이 아닐까 싶다.

과일 가게에 계절의 여왕처럼 크고 작은 감들이 모습을 드러내면 유난히 홍시를 좋아하던 아이가 생각난다. 지적 장애를 가진 열다섯 살 소년 <영광>이 후두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몹쓸 암이 입천장과 귀까지 번져 입을 벌린 채 숨을 쉬어야만 했고 다물어지지 않는 입을 고통스럽게 항상 벌리고 있어야만 하는 아이였다.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옆에 가서 말을 걸면 알아듣지 못하는 괴성을 지르곤 했었다. 영광이 어머니도 지적 장애인으로 소통이 어려웠고 아들이 앓고 있는 암의 진행 상태와 심각성도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그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할머니가 가끔 오셔서 통역을 해 주시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들 모자는 목욕을 하지 않아 악취가 났었고 그 냄새 때문에 같은 방 환자분들이 늘 눈살을 찌푸리곤 했다. 목욕봉사자들이 영광이를 씻기려면 응해 주지 않아 곤욕을 치렀고 물벼락을 맞기가 일수여서 목욕시키는 일이 큰 고역이었다. 어느 날 궁리 끝에 옆에 다가가서 무엇이 먹고 싶은지 물어보았더니 감! 감! 하면서 감을 찾는 것이었다. “한여름에 감...” 나는 냉동실에 넣어 둔 감이 생각났다.

어느 날 나는 피정을 갔다가 감나무 농장을 크게 하고 있는 한 자매님을 만났다. 그 분은 감을 팔아 생기는 이익금을 성지개발에 쓴다는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감을 샀었다. 인심이 후한 자매님이 어찌나 감을 많이 주는지 감을 받아 들고 오면서 무거워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욕심 부린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가져온 감을 시원한 베란다에 펼쳐 내놓고 만져봐서 말랑말랑한 홍시가 되면 냉동실에 넣어두곤 했었다. 다음날 홍시를 들고 병실을 찾았고 그 아이는 홍시를 보더니 일어나서 두말 않고 봉사자들이 시키는 대로 목욕을 할 수 있었다. 홍시 감 하나가 영광이에게는 특효약처럼 효과가 있어 덕분에 수월하게 목욕을 끝냈으며 수녀님과 봉사자들이 모두 좋아하셨다. 영광이가 홍시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보는 사람들도 모두 다 행복했었다. 그 이후 나는 매일 홍시 하나씩 들고 병실을 찾아 갔으며 그때마다 영광이는 홍시를 빼앗 듯 받아 먹었다. 그리고는 간호사나 봉사자 손을 잡고 복도를 한 바퀴 돌고 와서는 순한 양처럼 목욕을 하곤 했었다. 홍시 하나로 영광이는 물론 할머니와도 친해졌으며 영광이를 대세까지 줄 수 있었다. 홍시를 들고 그의 병실을 찾아갔을 때 그가 곤히 잠들어 있으면 그 옆에 조용히 홍시를 놓아두고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홍시가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날이 늘어나면서 영광이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고통의 문을 더 이상 넘지 못하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주님의 나라로 떠나갔다.

세상에 왔다가 너무 빨리 떠나버린 영광이는 다른 어떤 환자들보다 내게 지워지지 않는 한 장의 그림처럼 가슴속에 남아있다.

남원의료원 원목실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호스피스 병동 환우분들을 만날 때 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뿐이다.

오늘도 내가 그분들을 잠시나마 위로하고자 웃으면서 병실을 드나들지만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곤 한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언젠가 나도 그들처럼 그 자리에 누워 있게 되는 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위사람들에게 비추어질까 늘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 숨 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위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더 많은 환우들이 주님을 알고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우친다면 모든 사람이 좀 더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항상 병실

에 들어가기 전 기도한다.

“환우들 모두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어 두려움과 고통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

올해도 나는 가게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빨간 홍시를 산다. 겨울 내내 따뜻한 방안에서 홍시를 먹으며 나는 행복해 할 것이다. 달콤한 홍시 하나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 하던 그 아이처럼...

주님! 영광이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도구로 쓰셨으니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우리는 놀랍기만 하네!”  
아-멘

